



발레 'DIVINE'이 오는 5월 16~1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오월의 아픔 치유하는 천상의 몸짓

신성한, 숭고한, 천상의.. 다가오는 5월, 5·18 영령들을 위로하는 치유의 몸짓이 펼쳐진다. 광주시립발레단이 오는 5월 16일(오후 7시 30분)과 17일(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컨템포러리 발레 'DIVINE'을 무대에 올린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예술적으로 되새기는 이 작품은, 무고한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그날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위로와 치유에 초점을 맞췄다.

'DIVINE'은 광주시립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월간 몸'이 주관하는 제30회 무용예술상에서 작품상을, 그 해 제29회 한국발레협회상에서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하며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평론가들로부터 "극적인 서사를 배제하고 환상적이고 잔혹했던 시간을 발레 언어로 표현했으며 정치적 파국과 구원, 고통과 연대의 몸짓이 더할 수 없이 상서롭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품명인 'DIVINE'은 '신성한', '숭고한', '천상의' 등을 뜻한다. 제목이 암시하듯, 무고한 희생과 그 숭고한 정신을 예술적으로 승화한다.

또한 이야기 구조나 특정 인물을 내세우지 않고, 순수한 움직임과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관객들은 때로는 무용수들의 절규에 가까운 몸짓을 통해, 때로는 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 그날의 고통과 저항, 그리고 희망을 떠올릴 수 있다.

공연은 총 3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Freedom(자유)'을 주제로, '내가 침묵한다면', '외로운 길' 등 다섯 개의 악곡과 안무로 억압과 저항의 감정을 표현한다. 바닥을 기고, 몸부림치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자유를 향한 갈망과 절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2장 'Out of the darkness(어둠을 벗어나)'에서는 '강물빛', '기도' 등의 곡에 맞춰 희망과 평화, 그리고 그것을 위한 희생을 이야기한다. 흰 구름, 빛기둥 같은 이미지가 검은 천과 잿가루 등 비극적 상징물과 교차하며, 평

광주시립발레단 'DIVINE'
5월 16~17일 광주예술의전당
5·18 주제 컨템포러리 발레
상처 넘어 치유와 구원 메시지

화와 희망 그리고 이를 위한 희생을 암시한다.

마지막 3장 'The Divine Human Beings(숭고한 사람들)'에서는 순백의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하늘로 떠오르듯이 무대를 수놓는다. 절정에서는 허공에 매달려 있던 배 조형물이 지상으로 내려오며, 고요하지만 강렬하게 새로운 내일을 암시한다.

안무는 광주 출신의 주재만 안무가가 맡았

다. 프랑스 바느레 국제무용축제에서 최우수 무용수상을 수상했으며, 뉴욕 컴플렉션 발레단의 발레마스터 및 부예술감독을 역임했다. 현재는 미국 포인트 파크대학교 발레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외 무용계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안무가는 "이 작품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과 애달픔, 그리고 용기에 주목한 무대"라며 "무용수들의 움직임 속에 담긴 인간적인 감정들에 집중해 감성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총연출을 맡은 박경숙 예술감독은 "극찬을 받았던 광주시립발레단의 대표작 'DIVINE'을 재연하게 돼 기쁘다"며 "역사적 아픔을 춤으로 위로하는 이 작품이 지역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영암 시종 고분군’ 국가유산 된다

영산강 유역 마한 사회·문화적 변화 고증... 국가유산처, 지정 예고

‘영암 시종 고분군’은 5세기 중후반부터 6세기 초 조성된 고분군으로 영산강 분류와 삼포강 등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한다. ‘옥아리 장동 방대형 고분’과 ‘내동리 쌍무덤’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산강 유역 마한의 사회, 문화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영암 시종 고분군’이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23일 ‘영암 시종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영암 시종면 일대는 서해와 내륙 길목의 요충지로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내륙으로 확산하는 관문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이점은 독자적인 문화와 세력을 이룰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영암에 자리한 49개소 고대 고분 가운데 시종면에만 28곳이 있으며 ‘옥아리 장동 방대형 고분’과 ‘내동리 쌍무덤’은 고분의 축조기술 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적이다. 특히 영산강 유역에서 볼 수 있는 토기를 비롯해 금동관 세움 장식이 확인된 바 있다. 금동관은 당시 백제와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연계돼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옥아리 장동 방대형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
〈국가유산청 제공〉

아울러 봉분 외곽 장식에 쓰인 원통형 토기, 동물형상 토제품도 출토되기도 했다. 이들 유물은 외래 유물을 수용해 현지화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들 유적은 점토덩이로 방사형이나 동심원 형태로 구획하고 성토를 하는 방식이 활용됐다”며 “당대 기술의 수준을 보여줄 뿐 아니라, 마한의 요소를 토대로 인근 국가의 문물을 수용해 현지화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따스한 봄날 ‘낭송의 향연’

비타포엠 시산문낭송회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시를 낭송하는 프로그램인 ‘비타포엠’(회장 신남영)은 그동안 문화계 관심과 격려 속에 성장해 왔다. 지금까지 다채로운 시낭송과 공연을 통해 문학인들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선사해왔다.

비타포엠(회장 신남영) 제66회 시산문 낭송회가 오는 24일 오후 6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낭송회에서는 장정희 소설가가 강연을 한다. 장 소설가는 ‘삶이 여행이고, 여행이 삶이다’라는 주제로 평소 소설 창작에 대한 관점과 문학과 삶,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참석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시낭송은 김미승 시인, 오선덕 시인, 한영희 시인이 펼치고 고성만 작가와 최현주 작가는 산문을



신남영 회장

낭독한다. 공연 무대도 마련돼 있다. 이윤희가 가야금 병창을 선사해 공연장을 전통 가락의 흥겨움과 고아한 멋이 넘치는 기운으로 채울 예정이다.

신남영 회장은 “이번 비타포엠이 마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과 시민들이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며 “올해도 수준 높은 시낭송과 산문낭송으로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동근 광주시 문화원연합회장 선임

광주시 문화원연합회장에 오동근 광주시 광산문화원장(사진)이 선임됐다.

광주시문화원연합회는 최근 광주시 5개 지방문화원장단 운영위원회에서 오 광산문화원장을 제12대 광주시문화원연합회장으로 선출했다. 오 회장은 오는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광주시문화원연합회는 각 구 문화원을 아우르는 지역 문화 중심 기관으로 각종 문화행사와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광산문화원장을 맡아온 오 회



장은 지역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 회장은 “지역 문화는 시민의 삶 속에 살아 숨 쉬는 힘”이라며 “광주의 문화원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누구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